

# 60년 전 숨바꼭질, 할머니 돼서 물려주죠

### 탐골미술관 '종이놀이터' 1·3세대 통합 교감전 노인들 사회참여·자존감 높이고 아이한테는 문화·교육 기회 확대

가족구조가 변하면서 뜰해지는 조손교류가 복지관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아이들 보는 재미에 어르신은 물론 세대통합 교육 기회가 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인기가 많다. 어르신들은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아동들은 노인 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현장을 가 봤다.

원뿔 모양으로 뚫려있는 페지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머뭇대다보면 당신은 틀림 없는 어른이다. 네살배기 아이들은 3초도 안 지나 고갈 모자, 망원경, 화성기를 만들어 냈다. 페지는 머리, 눈, 입 근처에서 휘휘 변신했다. 마술같은 상상력에 주변 어른들은 박수를 보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탐골미술관(관장 최희유)에서 진행되는 종이놀이터 교실. 주변에서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종이 상자를 재활용해 만든 놀이공간이다. 종이 슬리퍼부터 종이집, 종이의자, 종이자동차, 종이성까지 그야말로 '종이나라' 다. 바닥도 종이로 마음대로 낙서도 가능하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할 뿐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의식도 심어준다.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세대 공감전이기도 하다. 3~9세 어린이들은 탐골미술관 실버도슨트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공작, IT그림체험, 전통놀이를 함께 한다. 6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동안 운영된다.

서울 남가좌동 환희어린이집 34명의 친구들이 6월 26일 종이놀이터를 찾았다. 평균연령 5세. "이제 놀아볼까요"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종이박스로 만든 성으로 우

르르 달려간다. 아이들의 난공에 박스가 하나둘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그저 페지가 지나지 않지만 아이들은 박스를 넘어다니고 부둥켜안고 던지고 노느라 시종일관 깔깔댄다. 얼마나 신나게 뛰놀았는지 신덕주(6) 어린이 몸에는 땀이 흥건하다.

체력 쩡쨍한 아이들을 쫓아다니기에 60대 중반 어르신들은 힘이 부친다. 종이자동차를 밀어달라 세 번 네 번 같은 아이가 찾아올 때면 한 대 쥐어박고 싶다가도 "할머니~"하고 안길때면 이내 마음이 누그러진다. 환희 어린이집 친구들이 유난히 '잘 놀다' 싶다. 백영자(69) 어르신은 "노인들 딱 괴로사하기 좋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5명의 실버 도슨트들은 아이들과 숨바꼭질, 동대문을 열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전통놀이를 가르쳐주며 함께 어울린다. 자신들이 어려서 했던 놀이를 50년이 훌쩍 지나 새로운 세대들에게 물려준다. 아이들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놀이를 하며 행복을 느낀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실버도슨트지만 중요한 건 용돈 벌이보다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데 있죠. 뒷방 늙은이로 앉아있기보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놀이도 가르쳐주고 하는 게 더 쓸모있지 않나요?"

이명숙(67) 어르신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고립감을 줄여준다는 것을 꼽았다.

신분교(69) 어르신도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동심도 느끼니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자녀를 키울 때는 몰랐던 재미도 지금에서야 느낀다고 했다. 1시간 넘게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떠나갈 시간이 되자, 신분교 어르신이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했다. 이내 주변에 있던 어린이들도 물러났다.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전화로 본다'던 황준성(5) 군은 "할머니 선생님과 놀아서 즐겁다"며 어르신들께 꾸벅 인사를 건넸다.



탐골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종이놀이터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동대문을 열어서 전통놀이를 하고 있다.

### 복지관 세대통합 프로그램

#### 탁구교실

서호노인복지관(관장 윤화숙)의 토마토 탁구교실은 복지관에서 탁구반을 수강중인 어르신 10명이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20명과 1:2로 결연을 맺어 탁구강습을 하는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이다.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1시간씩 진행된다. 토마토는 토끼같은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토트시니어 탁구교실의 줄임말이다. 복지관 측은 고령화시대에 따른 긍정적인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고 저소득 아동들에게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1·3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있었던 발대식에서는 적극적 참여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031)291-0911

노인상을 정립하고 저소득 아동들에게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1·3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있었던 발대식에서는 적극적 참여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031)291-0911

#### 난타교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중성)에서는 어르신의 올바른 여가선용을 돕고 아동과 어르신의 1·3세대 간 바람직한 상호

작용을 위해 난타교실 '한울림'을 실시하고 있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짝을 이뤄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난타연습을 한다. 함께 모여 작품을 완성해가며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지역 행사나 복지관 자체 행사에서의 공연도 할 예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며 서로 이해폭을 넓혀간다. 난타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은 여가문화활동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도 줄여나간다. (02)817-8052

#### 댄스포츠

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이수초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어르신과 학생들이 함께 댄스포츠를 배우는 '어흥프로젝트' (어르신과 어린이가 흥이나는)를 운영중이다. 초등학생들은 특별활동으로 매주 금요일 복지관을 찾아 약 1시간 넘게 어르신과 어울러 춤을 춘다. 지난 3월에 개강해 약 20명의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댄스파트너가 되었다. 7월까지 운영된다. (02)581-7992

배현진 기자 limus@hyunbul.com

# 故 배춘희 할머니, 5천만원 기부

###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 교육불사에 써달라" 유서남겨

지난 6월 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91) 할머니가 마지막 길까지 나눔을 실천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급여(월 90만원)와 광주지 지원금(월 60만원) 등을 모아 마련한 5천만원을 중앙승가대에 기부하고 돌아가신 것. 전달식은 6월 26일 중앙승가대에서 총장 원행스님과 나눔의집 부원장 호련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배 할머니는 타계 직전 유서를 작성해 학인 스님들의 교육 불사에 관한 후원금 지원 뜻을 전했다. 나눔의 집 입소자였던 할머니는 "생전 불교에 귀의하지 못한 게 한"이라고 했을 정도로 불심이 남달랐다.

할머니는 이루지 못한 공부 한을 풀고자 지난 2012년 중앙승가대에 3천만원을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 할머니는 5천만원을 중앙승가대에 기부했다. 6월 26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전달식에 참석한 중앙승가대 후원회 사무처장 초우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 나눔의 집 부원장 호련 스님. (왼쪽부터)

기부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 종로노인복지관 무악센터 개관행사

### 지역주민과 바자회, 풍선아트 등 즐겨

종로구의 부족한 노인여가시설을 보완하고 기존 복지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 16일 개관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관장 정관)가 6월 30일 개관행사를 가졌다.

이날 열린 개관행사 청춘마당은 문화·건강·체험·나눔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문화마당은 종로노인복지관 실버밴드인 상상밴드가 축하공연을 펼쳤고 지역 주민들이 노래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

이어 건강마당에서는 종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울검사와 종로치매지원센터에서 인지력검사를 시행했고 골밀도, 청력 검사 등이 외부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지역주민과 무악센터 이용 어르신 3백여명이 참여한 풍선아트, 캐리커처, 바자회 등을 즐기기도 했다.

한편 6월 27일에는 노인 여가활동 기



종로노인복지관 실버밴드인 상상밴드가 6월 30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제공을 목적으로 문화체험 '6월 유랑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 80여명은 전남 담양 대나무축제를 즐기며 죽녹원 등을 관광하고 돌아왔다.

배현진 기자



6월 26일 서울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개소 5주년 행사포럼을 개최하고 탤런트 김미경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개소 5주년 행사포럼

### 홍보대사에 탤런트 김미경씨 위촉

조계종복지재단이 2013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가 개소 5주년을 맞아 6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5주년을 축하하는 행사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36만7천가구. 전국적으로는 9.3%가 한부모 가구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정보제공, 위기지원, 대안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포럼에서 김혜영 교수(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는 "한부모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보다 3~4배 높다"며 한부모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7만원 지원에 머무는 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관점으로 한부모를 지원하는 민간지원 발굴이 필요하다"며 "종교계 역시 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한부모 지원서비스의 주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사무

국장은 "종교계는 지역사회 안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장학금과 빈곤가정 지원금을 한부모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지원등을 활용할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 및 돌봄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핀란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센터 개소 5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대통령을 두 번이나 역임한 타르야 카리나 할로넨 여사 또한 축사를 통해 "핀란드의 약 40%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다"며 "은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는 존경받아 마땅하며 그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할로넨 여사 역시 미혼모로서 자녀를 양육해 온 경험이 있다.

이날 홍보대사로 임명된 탤런트 김미경씨는 "자신 역시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4자매를 키워주셨다"며 한부모 어머니 아버지에게 "미려의 일꾼, 아티스트, 학자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갖고 힘을 내라"고 격려했다.

배현진 기자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마이크에서 소리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츠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팩스 (02)2601-8284

## ‘뽀뽀(FunFun)한 템플스테이’

### 제53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불교학교를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불교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2회(여름·겨울)씩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제53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는 불교학교(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유익하게 익힐 수 있도록 "뽀뽀(funfun)한 템플스테이"라는 주제로 정조의 효심이 깃들어 있는 효행본찰 응주사에서 개최합니다.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레크리에이션 이것만 알면 끝! (SPOT 및 불교학교 놀이의 실제)
- 부모의 마음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 노래와 율동으로 배우는 부처님 법
- 어린이·청소년 포교 이렇게 운영하세요!
- 붓다로 살자 (법회 및 불교학교 활용 소개)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7월 5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응주사 전법회관 (경기도 화성시 응주로 136)

■ 대 상 : 각 사찰 법회 및 불교학교(수련회) 지도자, 템플스테이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 참가비 : 5만원 (사전 접수 시 / 당일접수 6만원)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신청방법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urec) 참가신청서 다운.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E-mail (burec@hanmail.net), Fax (02-738-7863)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신청기한 : 7월 2일 (수) 오후 1시까지

■ 문 의 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 (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